

# 호남권 3개 철도사업에 올해 4625억원 투입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3025억원 등 투입

송정~무안공항 경유·목포 연결...2025년 완공 목표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호남권 3개 철도사업에 4625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302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1229억원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371억원을 올해 투입한다.

사업비가 가장 많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2조5300억원이며 구간 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300km/h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

되면 오송에서 목포까지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지방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연결돼 수도권 이남 지역과 영남과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단선으로 건설(최고속도 시속 200km/h)하며 현재 공정률 82.5%로 순항 중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62억원이며 2024년 개통 목표로 공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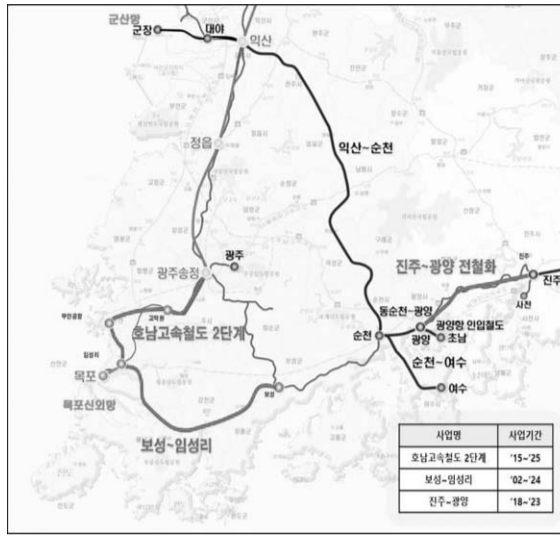
현재 노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

으며 지난 2019년 단선 비전철에서 전철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전철화 개통을 위한 송정 전 및 전차선 분야 공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140분에서 67분으로 단축된다.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광양항 개발에 따른 물동량 대처와 순천~부전 구간 열차운행 효율화를 위해 진주에서 광양까지 51.5km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내년 개통을 목표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간다.

현재 공정률은 74.4%이며 상반기



에 궤도와 건축, 전기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사전점검 등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형만 기자

# 광주시 29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수급자 등 6만8000 가구에 선불카드

광주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6만8000여 가구로, 국비 359억 원을 선불형 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현금(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1~7인 등)에 따라 다르며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기초생활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75만원이다.

자치구와 각 동에서는 지원금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예산집행 준비, 한시인력채용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문자나 우편물 발송을 통해 지급일자, 수령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사전안내에 따른 일정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카드 교부기간은 29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 사용이 불가하다.

/김용범 기자

## 광주 염주테니스장

장애인 시설 개보수 재개장

광주 염주테니스장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완비하는 등 개보수공사를 마치고 22일 재개장했다.

염주테니스장은 1994년 개장 후 장애인테니스 선수들과 비장애인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해 왔다. 2008년 시설 부분 개보수 등을 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라켓룸 등이 갖춰지지 않아 시설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SOC 사업에 응모했고 지원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비 11억원(국비 7억7000만원, 시비 3억3000만원)을 확보,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공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테니스장 주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문, 화장실, 샤워장 등을 개선하고 장애인 주차구역도 확대했다. 또 광주장애인테니스협회 사무실, 라켓룸, 장비보관소와 비장애인 테니스 동호인들의 라켓룸을 증축하는 등 무장애 체육시설로 탈바꿈하게 됐다.

테니스장 예약은 광주시체육회가 운영하는 광주스포츠클럽포털시스템에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생활체육이 활기를 되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염주테니스장, 재개장 /광주시 제공

##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기둥 '노란색으로'

중흥3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도로 대상 시행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지주를 눈에 확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북구 중흥3 재개발사업지 내 기부채납 도로 200m 구간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구간 표지판 지주를 노란색으로 변경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기존 백색이나 회색보다 노란색이 어린이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진 점과 먼 거리에서 시·종점 표지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두루 감안해 진행됐다.

시는 이 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

다고 판단,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이달 초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함께 협업팀을 구성하고 어린이보호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시·종점 지주를 설치하거나 노후·파손된 지주를 교체할 경우 모두 노란색 지주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원거리에서도 보호구역의 시·종점이 명확하게 인지돼 운전자들이 속도를 미리 낮추고 운전 운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기자

## 도 '농촌협약' 사업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순천·구례·해남·함평에 5년간 국비 1200억 투입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순천, 구례, 해남, 함평 등 4개 시·군이 확정돼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미래형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종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3년부터 착수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중 시·도 평가를 통과한 38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개 시·군을 확정했다.

심사 결과 시·도별로 전남과 충남, 경북이 각 4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3개 시·군, 충북·전북 각 2개 시·군, 경기·강원 각 1개 시·군이 선정됐다.

2020년 공모가 첫 시작한 후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4개 시군은 연말까지 평가 시 제출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조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시군이 농촌협약을 한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군별 국비 최대 300억 원 규모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박종배 기자

## "지역 주도 성장, 과감한 정부 지원 필수"

김영록 지사, 여수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서 강조

김영록 지사는 22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여수에서 열린 '2022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패널 토론에서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2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전남도가 민선8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수에서 개최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했다.

/조일상 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